육포

1. 지하철 안 (밤)

텅 빈 지하철. 가운데 자리, 정장차림의 한 여자가 앉아있다. 그 반대편에는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질겅거리며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기분 나빠하며 남자를 힐끔 쳐다보는 여자. 정적이 흐른다. 남자는 옆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뒤져 이상한 생김새의 육포를 꺼내 입에 넣는다. 여자는 피곤에 절어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앞에 있던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서있는 것을 발견한다. 긴장하는 여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여자를 슬그머니 쳐다보더니 여자 앞으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여자의 옆자리에 앉아버리는 남자. 당황한 여자는 남자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다시금 쇼핑백안의 육포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는 남자. 여자를 바라보며 괴상하게 미소를 짓더니 갑작스레 입을 벌려 자신이 먹고 있는 육포를 보여준다. 놀란 여자는 두려움에 떤다.

남자

(실실 거리며)

맛있어, 너도 먹을래?

아무 대답도 못하는 여자. 남자는 쇼핑백에서 육포를 하나 꺼내, 여자의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에 이를 넣는다. 보란 듯이 입을 벌리며, 육포를 먹는 남자. 그 순간 열차가 정차하고 문이 열린다. 여자는 쏜살같이 열차에서 내린다. 문이 닫히고 다시 출발하는 열차를 뒤돌아 보며, 두려운 표정을 짖는 여자.

Fade out

2. 뉴스 화면

뉴스 화면이 나타나고 밑의 배너에는 ‘인육 가공 살인범, 어젯밤 검거’라 써있다.

뉴스 보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마, xxx씨가 어젯밤, 서울 외곽을 지나가던 지하철 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xxx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열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 이던 xxx씨가 어젯밤 12시, 서울 외곽을 지나던 한 지하철 안에서 검거되었습니다. xxx씨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가공하여 만든 인육을 검거되는 그 순간까지도 복용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xxx씨는 지난 며칠간 인육 가공 살인범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을 공포로 휩싸이게 한….<end>